자주성을 옹호하자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자주성을 옹호하자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차 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과거에 우리 나라는 력사적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사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해방후 여러 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혁명사업에 참가하게 되였으며 당대렬의 구성도 복잡하였다. 또한 일부 일군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수양이 낮고 혁명투쟁의 경험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당내에 교조주의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왔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계속 당의 정확한 정책의 관철을 방해하였다. 전후시기에 들어와 교조주의의 해독적작용은 더욱 혹심하게 나타났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그것은 더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1955년에 우리 당은 모든 분야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투쟁을 전 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것은 종파주의자들의 맹렬한 반항에 부딪쳤다. 1956년에 그들은 당의 자주로선에 정면으로 항거하여나섰다. 종파분자들의 반당적활동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혁명도 건설도 더 전진시킬수 없었다.

우리 나라의 종파분자들은 례외없이 수정주의자들이며 교조주의자들이였다. 그들은 또한 사대주의자들이며

민족허무주의자들이였다. 이리하여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현대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였다.

우리 당은 종파분자들의 반당적진출을 단호히 물리쳤다.

결과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였으며 당원들속에서는 주체사상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모든 사업에서 당의 자주로선이 관철되였다. 주체의 확립은 당내에서 실로 새로운 사상해방을 가져왔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나타났다.

국제관계에서도 우리 당은 자주적으로 활동하였다.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우리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 정세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갔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이다.

제반 사실은 우리 당이 취한 모든 방침이 전적으로 옳았다는것을 확증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거둔 승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자주로선의 결실이다.

1.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한다

혁명과 건설은 간고하고 복잡하고 창조적인 사업이다.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사업은

모든 낡은 세력들의 필사적인 반항에 부닥치게 되며 허다한 난관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과거에 누구도 당하여보지 못한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이 부단히 생겨난다.

이 모든 경우에 써먹을수 있는 미리 준비된 처방이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을 지도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며 자기의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그래야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매개 나라의 실정은 그 나라 당이 잘 안다. 남이 더 잘 알수는 없는것이다. 또한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해서는 그 나라 당이 책임지고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똑똑한 해답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해나갈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독자적으로 맑스-레닌주의서적을 보고 리해할수 있다. 그들은 능히 자체로 맑스-레닌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혁명수행의 정확한 방도를 찾을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대가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바로 처리해나가는데 있어서 자기의 독자적두뇌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경우에 쓸수 있는 그러한 처방이나 혹은 그러한 일반적통칙…을 만들어내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매개 개별적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판별할줄 알자면 독자적인 두뇌를 가져야 한다》.**

독자적인 두뇌를 가진다는것은 사물과 현상을 자기 머리로 관찰하고 판단하며 자주적으로 행동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매여살수 없다. 사상적으로 남에게 매여 있어서는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할수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사상적으로 자유로와야 한다. 또한 자기 정신으로 살아야 하며 확고한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남의 풍에 놀수 없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머리로 사고하지 않는다면 자주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아무런 주견과 신념도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남이 말하는대로 따라말하며 남이 움직이는대로 따라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창발성도 발휘할수 없다.

자주성을 잃은 당은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가질수 없다. 그러한 당은 오늘은 이랬다 래일은 저랬다 한다. 그리고 부단히 한 편향으로부터 다른 편향으로 왔다갔다 하게 된다. 바람이 부는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수립할수 없다.

독자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잃게 되면 옳고 그른것을 식별할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수정주의를 하면 자기도 수정주의를 하고 남이 교조주의를 하면 자기도 교조주의를 하게 된다. 달리는 될수 없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상정치분야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하면 독자적인 사고력이 마비되여 어떠한 창발성도 발휘할수 없게 되며 나중에는 옳고 그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독자성과 자주성을 잃게 되면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좌우경적기회주의를 다 범할수 있으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사업을 망쳐버릴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결과 손해를 보게 되는것은 다름아닌 그 나라 당이며 그 나라 혁명이다. 이것은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도 해로운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에는 자기 정신으로 활동하지 않았기때문에 혁명에 큰 손실을 끼친 쓰라린 경험들이 적지않다.

물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할수 없다. 혁명을 헐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것이다.

자주정신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장애로 되는것은 사대주의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고 떠받드는 노예적굴종의 사상이다. 그것은 대국주의를 끌어들이며 교조주의를 낳게 한다.

지난시기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대주의는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다. 력대적으로 우리 나라 봉건통치배들은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였다. 그들은 대국에 아부굴종하며 그에 의거하여 자기의 통치를 유지하려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는 오랜 기간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한때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작고 락후한 처지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우리 나라의 일부 사람들을 사대주

의에 물젖게 하였다.

물론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가 나올수 있는 사회계급적조건은 없어졌다. 그러나 사대주의사상잔재는 의연히 남아있었다.

사대주의자들은 한때 혁명위업에 적지않은 해독을 끼쳤다. 그들은 모든 일을 자기 머리로 사고할 대신에 우선 남을 쳐다보고 남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것만을 기다렸다. 그리하여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였으며 남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갔다. 이런자들은 큰 나라의것이라면 무조건 숭배하였으며 모든 일에서 남을 모방하는데만 골몰하였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정신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태도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는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것도 아니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서부터 혁명을 하고있다.

스스로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주견없이 남에게 맹종맹동할수 있겠는가. 사대주의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울수 없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갈수 없었다.

우리 당은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내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주적립장이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었다. 또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련결되여있다. 만약 우리 당이 모든 문제를 자기의 정신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립장을 견지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오늘과 같은 성과를 달성할수 없었을것이다.

우리의 경험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당이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판단과 주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정확히 처리해야만 자기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하며 자주정신을 가지고 주체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2.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이며 그 나라 인민이다. 따라서 혁명을 수행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공산주의자들은 주인된 립장에 서야 하며 우선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혁명도 건설도 할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줄수는 없는것이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으며 수입할수도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그 나라 내부력량이라는것을 가르치고있다. 혁명의 승패는 무엇

보다 먼저 그 나라 당과 인민의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활동에 달려있다.

매개 나라의 혁명은 물론 세계혁명과의 련관속에서 진행되며 국제적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국제적요인의 작용을 과소평가하여서는 안된다.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전세계 로동계급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유리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본적인것은 그 나라 내부요인이다.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

오늘날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에서의 승리는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웰남인민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원을 받고있다. 이것은 물론 웰남인민에게 도움으로 되고있으며 고무적힘을 주고있다.

그러나 오늘 남북웰남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전쟁에서 거두고있는 위대한 승리의 주되는 요인은 외부의 원조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자신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영웅적투쟁에 있다.

그 나라의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은 승리할수 없는것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우선 자기 나라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자기 인민의 힘에 확고히 의거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문제는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그 힘을 옳게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서는 어떠한 창발성과

적극성도 발휘할수 없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기대할수도 없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도 잃어버리게 된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혁명력량을 준비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원조만 앉아기다린다면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며 혁명의 전취물도 고수할수 없을것이다. 이것은 남에게 의존하여 남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하려는 태도이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고 외부의 지지성원은 부차적인것으로 여겨야 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투쟁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할수 있으며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에도 기여할수 있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어디까지나 자기 힘을 첫자리에 놓고 외부로부터의 원조는 다음자리에 놓아야 한다. 이것은 혁명의 주인이 그 나라 당과 인민이라는 원칙에 비추어보아도 정당한것이다.

자기 힘을 위주로 한다는것은 다른 나라의 지지와 원조를 배척하는것이 아니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국제적지지와 원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커다란 힘으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와 원조만 바라면서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혁명의 전진은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주인이 똑똑하여야 그 원조를 옳게 리용할수 있다. 외부의 원조가 어느 정도 은을 내는가 하는것은 원조받는 사람들에게 많이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원조라해도 원조받는 사람들이 잘하지

않으면 원조가 큰 도움을 줄수 없다.

자기 힘을 위주로 하는것은 다른나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자는것이다. 이것이 곧 다른 나라들의 원조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며 참된 공산주의자들의 립장이다.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자주정신의 발현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만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장애들을 뚫고 나아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은 순조롭게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진과 함께 후퇴도 있을수 있으며 승리와 함께 실패도 있을수 있다. 혁명과 건설과정에서는 예견치 않던 난관도 생기며 희생도 나오게 된다.

모든 일에서 자기 힘에 의거하려는 태도가 없이는 혁명의 간고한 시련을 이겨낼수 없으며 사소한 곤난앞에서도 동요하고 주저앉게 된다.

자력갱생의 정신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용감성과 인내성을 발휘하여 투쟁할수 있다. 그리하여 곤난을 타개하고 불리한 정황을 유리한것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자기 힘을 위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왔다. 우리는 언제나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당원들과 인민들을 교양하고 있다.

전후복구건설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당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배격하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였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재더미우에서 전후복구건설의

첫삽을 들었다. 모든것이 부족하였으며 어려웠다.

당시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동요가 있었다. 특히 종파분자들은 복구건설이 우리 인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힘을 믿지 않았으며 모든것을 남의 원조에 의거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우리는 인민의 무진장한 힘에 의거한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능히 극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복구건설할수 있다는 깊은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물론 우리는 형제나라들로부터 경제기술적원조를 받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으로 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남의 원조만 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민의 무진장한 창조력과 국내자원에 의거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형제나라들의 원조도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의 방침을 받들고 일떠섰다. 그리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면서 짧은 기간내에 전후복구건설을 완성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 대중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그의 로력투쟁을 고무추동하였다. 대중은 당주위에 단결하여 모든 난관과 애로를 뚫고 나아갔다.

이 행정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가 일어났으며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시작되였다. 숨어있던 수많은 예비들이 동원되여 도처에서 기적들이 창조되였으

며 나라의 경제형편도 풀리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당당히 제 발로 걸어갈수 있게 되였으며 어떠한 시련도 능히 극복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의 경험은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것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타개할수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매개 당이 자기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잘 하는것은 다른 나라 인민들을 지원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다른 나라 인민들의 혁명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의 혁명력량이 튼튼하여야 한다. 주체적 혁명력량이 강해야 다른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며 그들에게 지원도 줄수 있다.

혁명적인민들을 지원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특히 혁명을 먼저하였거나 앞서 발전한 나라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투쟁을 하고 있는 인민들과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 인민들을 각방면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상에 포로되여서는 안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할수 없으며 계급적형제들을 잊을수 없다. 만약 자기 나라 혁명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세계혁명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혁명투쟁을 중도에서 포기하는것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혁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혁명력량과 단결하여 공동위업의 승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맑스-레닌주의는 행동의 지 침 이 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활동에서 항상 맑스-레닌주의를 자막대기로 삼아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국제로동운동의 력사적경험을 일반화한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합법칙성이 명시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인류의 모든 선진적사상의 최고봉이다. 그것은 세계혁명의 지도사상이며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며 백전백승의 무기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오직 맑스-레닌주의리론에 의하여 지도될 때에만 혁명에서 전위투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혁명은 방향을 잃게 되며 결국에는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된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에 주관주의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개별적명제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멋대로 풀어서는 안된다. 이렇게하면 맑스-레닌주의를 외곡하고 비속화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종파분자들이 한때 그렇게 행동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종파주의목적을 위하여 맑스-레닌주의명제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 본질을 외곡하였다. 또

한 나라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한것처럼 자처하였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를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권리를 독점하고있는듯이 행동하였다. 이러한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으며 남이 하는 일은 다 틀렸고 보잘것없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었다. 맑스-레닌주의의 몇개 명제를 교조적으로 외우기나 하였지 그의 알맹이는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갖 행세식 맑스-레닌주의자에 불과하였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쓰딸린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넘불쟁이들과 독경주의자들은 맑스주의와 맑스주의의 개별적결론 및 정의들을 사회발전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코〉변하지 않는 교조의 집합으로 간주하고있다. 그들은 만일 이 결론과 정의를 암기하여 제멋대로 인용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암기한 결론과 정의가 모든 시기와 모든 나라 및 생활상 모든 경우에 다 그들에게 유용하리라고 타산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자는 맑스주의의 문자는 보나 그 본질은 보지 못하며 맑스주의의 결론과 정의는 암기하나 그 내용은 리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뿐이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을 리해하고 그 혁명적진수를 파악하며 그것을 혁명의 실천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할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맑스-레닌주의의 매개 명제들을 력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는것이 중요하다. 맑스-레닌

주의의 리론적명제들은 우선 그 당시의 혁명투쟁과 결부되여있다. 우리는 그 명제가 어떤 구체적조건과 어떤 계급투쟁의 환경에서 나왔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하며 그 기본사상을 체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현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옳은 대답을 줄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 그것은 실천속에서 검증되며, 보충되며, 풍부화되여나간다.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옳게 령도하자면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만 가지고서는 안된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발전에서 제기되는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명제를 제시하고있을뿐이다. 그것은 매개 나라의 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줄수 없다.

사회는 부단히 변화하며 발전하여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언제나 리론보다 풍부하고 복잡하고 구체적이다.

맑스-레닌주의명제들은 매개 나라의 생동한 현실과 결부되여야 한다. 그래야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옳게 동원할수 있다.

우리는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실천하는데서 나라의 민족적 및 력사적특성을 결코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매개 나라는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처하여있으며 따라서 혁명과 건설의 수행방도도 똑같을수 없다.

원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전술의 통일은 결코 민족적다양성의 말살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맑스-

레닌주의원칙을 민족적 및 국가적차이에 옳게 맞추어 적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매개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것은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를 보장케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각국 당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에서 자기 나라의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원칙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는것이라면 이미 있는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체의 지도리론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확한 지도리론이 있어야 정확한 전략과 전술이 나올수 있다. 다른 당의 지도리론을 가지고서는 결코 자기 나라의 혁명을 령도하여나갈수 없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의 독자적인 지도리론을 확립하였다. 그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조선의 현실에 구현된 산 맑스-레닌주의이다.

매개 당의 지도리론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범위에서 의의를 가진다. 어느 한 나라 당의 지도리론이 아무리 훌륭한것이라 하더라도 혁명의 요구와 정세가 나라마다 다른 조건에서 그것이 모든 당들에 통용될수는 없는것이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를 적용하는데서 어느 한 편

향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구체적특수성만 내세우고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칙을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우경기회주의적오유를 범하게 된다.

력대수정주의자들은 《정세의 변화》, 《창조적발전》이라는 구실밑에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외곡하고 수정하였다.

력사적실례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수정주의진탕속에 빠지게 되면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거세하고 그 보편적진리를 부인하게 된다. 그리하여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고 계급협조를 설교하며 낡은 제도의 혁명적전복이 아니라 그 개량을 주장한다. 수정주의자들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그들을 미화하면서 로동계급을 혁명의 길에서 리탈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일시적이고 국부적인 리익을 위해 로동계급의 근본적리익을 저버린다.

유고슬라비아의 실례는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다른 편향도 경계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만 강조하면서 변천된 정세와 나라의 구체적특성을 무시하는것도 잘못이다.

시기와 조건을 가리지 않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기계적으로 옮겨놓는다면 그것은 교조주의적편향을 낳게 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맑스-레닌주의는 생기를 잃게 되며 죽은 교리로 되고말것이다. 또한 당은 대중과 현실로부터 리탈될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혁명과

건설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온갖 그릇된 편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하여 나아갈수 있다.

4.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창조하고있다. 이것은 매개 나라의 각이한 실정과 특수성으로부터 오는것이다. 앞으로 많은 나라 인민들이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설수록 더욱더 다양하고 귀중한 경험들이 창조될것이다.

큰 당이나 혁명한지 오랜 당만이 좋은 경험을 창조하는것이 아니다. 작은 당이나 청소한 당도 맑스-레닌주의원칙에 서서 자주성을 견지하여나아간다면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유익한 경험들을 창조할수 있다.

모든 당들이 이룩한 긍정적경험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며 맑스-레닌주의를 더한층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매개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더 헐하게 더 빨리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데 도움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형제당들이 창조한 경험들을 다 존중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특정된 어느 한 당의 경험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당들의 경험이 다 귀중하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한 당의 경험만이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모범으로 될수는 없다.

어떤 당이 창조한 경험이든지 다 실천속에서 검증되여야 한다. 만일 어떤 당의 경험이 리론적으로 옳고 실천적으로 유익한것이라면 그것은 정당하게 평가될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큰 당의것이든 작은 당의것이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 리로운 경험이라면 다 존중하고 여기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형제당의 경험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것은 자체의 실정과 필요에 따라 개별적당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누구도 간섭할수 없다.

형제당의 경험을 배운다는것은 결코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형제당들의 경험을 배우는 목적은 그것을 자기 나라 혁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당들의 경험을 통째로 삼키지 말아야 한다. 통째로 삼켜서는 아무리 좋은 경험도 혁명

과 건설에서 쓸모가 없으며 오히려 해를 가져올수 있다. 본받을 가치가 있는 경험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자체의 실정과 특수성에 맞추어서 혁명에 유익하게 그것을 소화하여야 한다.

모든 나라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험은 있을수 없다. 매개 당들이 활동하고있는 조건은 서로 다르다. 이러한 형편에서 비록 한나라에서는 적합하고 유익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을수 있다.

이러저러한 경험은 매개 나라에서의 구체적인 혁명적실천속에서 창조되였다. 그러므로 구체적조건이 다른 나라에 그 경험을 그대로 옮겨놓을수 없는것은 명백하다.

김일성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형제당들의 경험을 연구하며 거기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경험들이 그 나라들의 어떠한 력사적발전단계와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계급적관계에서 창조되였으며 그것을 적용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조주의의 오유를 피치 못할것이다».**

형제당들의 경험을 도입하는데서 우선 중요한것은 그 경험에서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인가를 옳게 가려내는 문제이다.

주체적립장이 확고하지 못하면 남의 경험을 환상적으로 대하게 되며 덮어놓고 숭배하게 된다. 그리하여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 어느것이 배울 가치가 있고 없는지도 전혀 분간할수 없게 된다.

형제당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대하며 그것을 자기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것은 결코 그 경험을 존중하지 않

거나 그 당을 지지하지 않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형제당들사이의 국제주의적친선관계는 그들사이에 그 어떤 맹종맹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형제당들의 경험을 받아들이는데서도 항상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왔으며 또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은 형제당들의 고귀한 경험을 존중하고 배우지만 그것을 항상 비판적으로 대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에 도움이 될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때 우리 당내에 잠입하였던 일부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은 형제당들의 경험에 대한 우리 당의 자주적립장을 맹렬히 반대하여나섰다.

그들은 우리 당의 자주적인 태도가 형제당들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이단시》하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대내외활동에서 다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기계적으로 모방할것을 요구하였다.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원칙에서 완전히 리탈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실정과 특수성을 무시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사업한것이 아니라 다른 당의 정책에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랐다.

당에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나라 당정책과 일치하는가 하는것부터 따지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외국의 본대로 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건설

로선을 시비하여나섰다. 여기에서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그 어떤 문헌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도 해본 경험이 없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였다.

교조주의자들은 현대적농기계를 생산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농업협동화정책을 제기하는것이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농업협동화의 력사적필연성을 부정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자 또한 협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자본주의적상공업을 리용하지 왜 개조하는가 하면서 당의 방침에 도전하였다.

교조주의자들은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오랜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정책에 대하여 당을 《우경화》하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오랜 인테리가 《자본주의분자》이기때문에 숙청해야 한다는것이였다.

물론 오랜 인테리들은 대부분이 유산계급의 출신이며 과거에 착취계급에 복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외래제국주의의 억압과 민족적차별을 체험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정한 혁명성도 있는것이다.

교조주의자들은 오랜 인테리의 부정적측면만 보고 그들의 긍정적측면은 보지 못하였다.

당은 오랜 인테리들에 대한 편협한 태도를 배격하고 그들을 교양하고 혁명화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재능과 기술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오랜 인테리들은 투쟁속에서 단련되였으며 붉은 인테리로 개조되여 일을 잘하고있다.

우리 당은 교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의 온갖 그

릇된 주장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었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외국의 경험도 참작하였지만 우선 자기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기본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자체의 경험을 창조하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갔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전 행정에서 로선상 좌우경의 편향을 범하지 않았으며 원칙적착오를 면할수 있었다.

현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전적으로 정당하였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우리는 자기가 이룩한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칙을 고수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당들이 이룩하는 고귀한 경험들로 하여 더욱 풍부화되고 발전될것이다.

5. 민족적긍지를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혁명을 하고있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진 기본임무

는 우선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여야 세계혁명에도 이바지할수 있다.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긍지를 가져야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잘 투쟁할수 있다.

인민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하에서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요인의 하나이다.

이러한 애국주의정신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를 잘 아는데서만 배양될수 있는것이다. 자기 나라의 력사와 우수한 전통을 잘 알아야 하며 또한 오늘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자기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모르고서는 애국심도 민족적긍지도 자주정신도 생길수 없다.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적극성과 헌신성을 발휘할수 없다.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면 필연코 민족허무주의에 빠진다.

민족허무주의는 자기 나라의 모든 우수한것을 부정하고 남의것을 덮어놓고 례찬하며 우상화하는 낡은 사회의 사상잔재이다.

민족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주성도 가질수 없고 민족적자주권도 보존할수 없으며 혁명을 수행할수도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에게 아부굴종하며 자기 나라 인민의 영예와 리익을 저버리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허무주의를 허용할수 없다.

민족허무주의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고취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략탈을 위하여 인민들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족적리해관계를 배반하도록 사상공세를 강화하고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허무주의사상에 빠져들어갈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에 한때 민족허무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가 조선사람이며 따라서 조선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기본립장을 잊어버리고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조선사람으로서의 영예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론 똑똑한 자기 정신을 가질수 없었다.

민족허무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현실과 자기 당의 정책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 혁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다른 나라당의 정책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 나라의 력사와 혁명전통을 다 부인하였으며 우리의 고귀한 과학문화유산들을 모조리 묵살하였다.

후대들을 교육하는데서도 당의 정책, 조선의 력사, 지리, 문화, 풍습 등 우리 나라를 더잘 알고 우리 나라 혁명에 더잘 복무할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지 못하게 하였다. 그보다도 외국의것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돌리게 하였다.

문학예술도 조선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민족적바탕에서 발전시키는것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노래와 춤도 우리의것은 집어던지고 서양본을 따게 하였다. 심지어는

그림도 우리의 아름다운 산천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과 생활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외국의것을 더 많이 그리게 하였다.

민족허무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민의것은 다 보잘것없고 유치한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것을 내세우는것을 못마땅해하였고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 그리고 외국의 흉내를 내는것은 고상한 일로 생각하였다.

민족허무주의는 우리의 혁명사업에 적지않은 손실을 주었다. 그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부인하며 당의 령도하에 인민이 이룩하여놓은 혁명적 업적들을 부정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우리 당은 일찌부터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관하게 전개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대중들로 하여금 남의것이 아니라 자기의것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잘 알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 인민이 이룩한 업적들과 자기 나라의 성과를 긍지를 가지고 대하며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사람으로서의 영예를 간직하고 조선혁명에 복무하겠다는 각오를 굳게 하며 주체의식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민족적전통과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우리의 경험은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중요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문화유산에 결코 부정적으로 대

하지 않는다. 로동계급이야말로 민족의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사명을 지닌 계급이다.

자기 인민이 창조한 모든 애국적이며, 인민적이며, 선진적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새로운 토대우에서 더한층 발전시켜야 한다. 과거 사회의 유산이 착취계급과 이러저러하게 관련되여있다고 하여 그것을 모조리 부정해버려서는 안될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급적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분리하지 말아야 하며 량자를 옳게 결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문화는 빈터우에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문화의 모든 진보적유산들을 계승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창조될수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프로레타리아문화는 어디선가 알지 못할 곳에서 뛰여나온것도, 프로레타리아문화의 전문가로 자칭하는자들에 의하여 안출된것도 아니다. 이러한 말은 모두 잠꼬대다. 프로레타리아문화는 자본가의 사회, 지주의 사회, 관료의 사회의 압박밑에서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합법칙적발전이여야 할것이다》.

만일 과거의것을 다 부정한다면 무엇을 밑천으로 하여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겠는가.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비판적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계승할만한 민족적유산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의 력사적제한성에서 완전히 벗어날수는 없다. 그러므로 민족적유산을 맑스-레닌주의적유물사관의 견지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여 긍정적인것들을 다 뽑아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

켜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문화는 형식에 있어서는 민족적이며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이다.

만약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다른 극단에 흘러 복고주의적편향을 범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편향도 반드시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과거를 잘 알뿐만 아니라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과거만을 연구하고 현실에 대한 연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나라의 현실을 모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리해하지 못하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할수 없다.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는것도 현실을 정확히 리해하고 파악하며 혁명사업을 더잘하기 위한것이다.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이다. 이것은 민족배타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량자는 불가분리적으로 통일되여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존중하고있다. 자기 조국을 진실로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참된 국제주의자로 될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민족적긍지도 자주성도 가질수 없다.

우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민족적긍지와 자주정신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주체를 세우고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될것이다.

6. 자립적민족경제는 자주성의 물질적기초이다

정권을 잡은이후 공산당 및 로동당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야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을 계속 추진시킬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경제건설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 경제건설을 잘하지 못하면 다른 혁명과업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혁명의 정치적과업과 경제적과업은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기본은 자립적민족경제를 창설하고 강화하는것이다.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정치적자주성도 보장할수 없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립적으로 꾸려나가지 못하며 경제를 자기 의사대로 움직일수 없다면 그 나라를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매여있는 민족은 그 나라에 대한 정치적의존에서 벗어날수 없는것이다. 경제적의존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의존을 가져오며 경제적예속은 정치적예속을 낳는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지난 시기에 식민지 및 반식민지로 있었던 나라에서 특히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지난 시기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락후하고 기형적인 경제를 물려받았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식민지적편파성을 제거할

수 없으며 나라의 기형적발전을 면할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영원히 락후한 상태에서 빠져나올수 없으며 완전히 자주적인 나라로 될수도 없다.

물론 이러한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려면 많은 자금과 로력과 시간이 요구되며 허다한 곤난도 겪게 된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을수 있으며 제품의 원가도 높고 질도 낮을수 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정한 시일을 경과하면서 간부들이 양성되고 로동자들이 숙련되며 경험이 축적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해결되는 문제이다. 곤난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제발로 걸어가자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만일 어렵다고 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수호할수 없으며 자주권을 고수할수 없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여왔다. 우리는 오늘도 이 로선을 계속 견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는 1947년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 자립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자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자립적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수 없고 건국도 할수 없고 또한 살아나갈수도 없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우리 나라 형편에

서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우리는 력사적으로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넘겨받았다. 우리에게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민족간부도 부족하였다. 경제건설의 경험이 없었으며 기술수준도 심히 뒤떨어져있었다.

여기에 또한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종파분자들의 반대를 받았다. 종파분자들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민족주의》니 《페쇄적경제》니 《국제적협조에 배치된다》느니 하고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심각한 사상투쟁을 동반하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되고 힘있고 문명한 민족으로 되기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확고하게 동요없이 전진하였다. 우리 당은 곤난을 극복하면서 한걸음한걸음 걸어나갔다. 이리하여 결국에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오늘 우리는 주로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 자기의 민족간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외국에 의존하던 나라로부터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할수 있는 나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의 위대한 전변을 의미한다.

과거에 우리는 뒤떨어진탓으로 하여 기계설비들과 소비품들, 심지어는 식량까지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의 공업품들과 농산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물론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아직 풍부하지 못하며 질도 높지 못하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기계와 설

비들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들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할수 있게 되니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더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는 밑천으로 될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주의식을 크게 높여주고있다.

우리는 인민들속에서 아직 질은 좀 낮지만 자기 나라의 제품을 사랑하고 아껴쓰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있다. 자기 나라 제품은 무시하고 외국의 상품들만 바라보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인민들이 경제생활에서도 자주의식을 발양하여 자립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습관화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코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워야 하며 좋은것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과 자립적으로 살아간다는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자립적으로 살아나가는 기풍을 세워야만 인민들의 사상생활도 건전할수 있으며 자주성도 더 강화될수 있다.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하루빨리 자기 나라를 선진국가의 대렬에 올려세워야 한다.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모든면에서 세계선진수준을 따라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무엇에서나 세계에 자랑할만한것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만 현대사회의 문명한 민족으로 떳떳이 나설수 있으며 사대주의도 완전히 극복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국제관계에서도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누릴수 있다.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평등이란 빈말공부에 불과하

다. 제발로 걸어가지 못하면 남의 눈치를 보며 남에게 구걸하는 처지를 면할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을 부인하는것은 사실에 있어서 매개 나라들의 평등권과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짐으로써만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활동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호상협조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문을 닫아걸고 남의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쇄국주의도, 관문주의도 아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호상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서로 유무통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사회주의나라들의 호상협조는 매개 나라들의 자립적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형제나라들사이에서는 협조를 구실로 매개 나라의 자주성을 침해하며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매개 나라의 자립성을 무시하면서 경제적협조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나라들사이에 불평등한 관계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게 한다. 이것은 불피코 경제발전수준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할것이다. 사회주의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이러한 현상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자립적경제건설만이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부강발전을 이룩하며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다.

7.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오늘 세계에는 수많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있다. 그들중에는 큰 당도 있고 작은 당도 있으며 오랜 력사를 가진 당도 있고 비교적 청소한 당도 있다. 또한 사회주의나라당도 있고 자본주의나라당도 있다.

매개 당들은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자기의 혁명투쟁을 진행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형제당들사이에서 호상관계를 옳게 맺을것을 요구하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큰 당과 작은 당, 사회주의나라당과 자본주의나라당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경험은 흔히 큰 당과 작은 당, 사회주의나라당과 자본주의나라당사이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사이의 관계를 옳게 처리하려면 형제당들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호상관계는 완전한 평등, 자주,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동지적협조 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권적당도 있을수 없다. 큰 당과 작은 당은 있으나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은 있을수 없다. 누구는 그 어떤 중앙적위치에서 지시하고 통솔하며 누구는 그밑에서 복종하고 떠받드는 관계란 허용될수 없다. 그들은 다 같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동등한 성원들이다.

매개 당들은 서로 평등한 립장에서 접촉과 협의를 가지며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한다.

이러한 호상관계의 원칙은 1957년과 1960년에 있은 각국 당대표들의 회의에서 확인되였다.

형제당들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모든 당들에 있어서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이다. 이 의무에는 큰 당이나 작은 당, 사회주의나라당이나 자본주의나라당이 모두다 충실하여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에는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단일한 국제당산하에 결속되여 활동한 시기가 있었다. 그때에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중앙집권적원칙에 따라 국제당의 결정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였다. 그것은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 필요하였던것이다.

제3국제당이 조직될 당시만 하여도 대부분의 나라에는 아직 공산당이 창건되지 못하였었다. 그때 전세계 공산당원수는 약 40만에 불과하였다. 제3국제당창립대회에는 공산당 및 공산주의적조직들과 사회당좌파들까지 포함하여 30개 나라의 대표 51명이 참가하였을뿐이였다. 창건된 당들도 아직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하지 못하였다.

오늘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은 그때보다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다.

사회주의는 한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되였다.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약 90개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활동하고있으며 여기에는 약 5천만의 당원들이 망라되여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시련을 겪고있으나 현 시대의 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되고있다. 각국 인민들의 혁명운동도 미증유의 규모로 확대되였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있다.

오늘과 같은 거대한 규모에서 발전하고있는 세계혁명운동을 그 어떤 단일한 중앙이 유일적으로 지도할수는 도저히 없다. 그것이 어떠한 형식을 띠든간에 모든 당들을 지도할수 있는 국제적중앙은 오늘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현실적요구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어느 한 당이 모든 형제당들을 지도한다는것은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당이 《세계혁명의 중심》이나 《지도적당》으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해서는 그 나라 당이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고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대신할수 없다.

만일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세계혁명의 중심》이나 《지도적당》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 당의 특권적지위를 인정하는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당은 명령하고 지시할수 있으며 다른 당들은 그밑에서 복종하여야만 할것이다. 매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또한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지도할수도 없게 될것이다.

형제당들사이에 있어서는 다른 당들의 정책에 대하여 간섭하며 압력을 가하는 일이 있을수 없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호상관계는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의 국제관계이다. 매개 당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공동위업에서 호상리해와 존

중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하며 진정한 동지적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년간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기의 그릇된 로선과 견해를 다른 형제당들에 강요하며 이것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압력을 가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등 참을수 없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국주의적행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국주의는 형제당들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국주의는 원래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이다. 그것은 작은 나라를 멸시하고 압박하던 낡은 사회통치배들의 사상이다. 대국주의가 허용된다면 형제당들 호상간에 동지적이며 평등한 관계가 유지될수 없다.

어느 한 당의 정책이나 결정은 다른 당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성이나 구속력도 가질수 없다. 그 어느 당이 아무리 오랜 력사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반적로선으로 내려먹일수 없다. 한 당의 결정은 어데까지나 그 당내에서만 의무적인것으로 된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당들이 자기 당의 정책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따를것을 강요할수 없다. 특히 큰 당이나 사회주의나라당이 자기의 지위를 리용하여 작은 당이나 자본주의나라당에 자기 정책을 내려먹이거나 또한 압력을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일관하게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나라의 혁명운동을 정확히 령도하고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에 기여하고있는 일본공산당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여왔으며 또 지지하고있다.

매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독자적으로 자기 정책을 규정할수 있으며 또 규정하여야 한다.

현대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그 투쟁방법과 형식은 매개 당이 처한 실정에 따라 다를수 있다. 각국 당들이 활동하는 조건과 구체적임무가 각이한 형편에서 이것은 의례히 있을수 있는 일이며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다.

모든 당들의 활동을 그 어떤 한개의 틀에다 얽매여놓을수는 없다. 어떤 방식을 택할것인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매개 당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다.

형제당들의 자주적립장이 어느 개별적인 당의 립장과 같지 않다고 하여 결코 그것이 맑스-레닌주의에 배치된다고 말할수 없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당들의 자주적태도가 《기회주의》나 《중립주의》나 《절충주의》로 될수도 없다.

다른 당들의 정책이 자기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 틀렸다고 하며 함부로 딱지를 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제 공산주의운동내에 의견상이가 있는 조건밑에서 형제당들사이에 련계와 접촉을 가지는 문제도 일률적으로 결정할수 없다. 이 문제도 자기의 구체적실정에 따라 매개 당이 자주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이 하는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남의 지시에 추종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라면 자기의 신념을 고수할줄 알아야 한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공산주의자로서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의지에 반하여, 환경의 지시에 반하여, 외부의 〈지령에 의하여〉 활동할것을 승낙할 그런 공산주의자들은 세상에서 찾아내지 못할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곳에 있다면 이런자들은 한푼의 가치도 없는자들일것이다…공산주의자들의 가치는, 특히 그들이 자기 신념을 고수할줄아는데 있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형제당들의 자주적활동에 대하여 선입감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조급하게 속단하고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형제당들의 자주적인 태도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당들은 서로 응당한 리해를 표시하여야 한다. 매개 당들은 말로써만이아니라 실제행동에서 언제나 다른 형제당들의 정책과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의 신중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할것이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사이에 있을수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에서의 견해와 방법상의 차이가 그들의 친선과 단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형제당들을 모욕하며 그 자주성을 유린하는 행위는 오직 형제당들사이의 친선관계를 해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결과 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이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형제당들사이의 자주성의 원칙이 확고히 보장되여야 한다.

자주성은 단결의 전제이며 기초이다. 자주적권리가 침해당하면 단결은 약화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자주

성을 서로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형제당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주성과 단결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은 반드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1957년 선언과 1960년 성명의 혁명적원칙에 립각하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조건밑에서만 공산당 및 로동당들사이의 친선단결이 진실로 강화될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력도 가일층 증대될것이다.

8.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반제 공동투쟁을 강화하자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반제공동투쟁을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주성의 원칙은 고립주의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반제투쟁에서 국제적련대성과 공동행동을 거부하는것도 아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도 잘하고 세계혁명도 잘하자는것이다.

혁명의 민족적과업과 국제적과업은 서로 통일되여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 투쟁할뿐만아니라 국제로동계급의 공동위업을 위해서도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옹호하면서 반제공동투쟁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강화하는것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임무이다.

미제국주의는 가장 큰 국제적착취자이며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국제헌병이다.

최근년간의 모든 정세발전은 이 명제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책동을 부단히 감행하고있다. 또한 민족해방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압살하며 세계도처에서 평화를 교란하고있다.

오늘 미제는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꺼리낌없이 진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야만적폭격을 하노이와 하이퐁 지역에까지 확대하고있으며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더욱 악랄하게 하고있다. 그들은 웰남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런식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고있다.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은 동시에 전체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침략이며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도전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은 제국주의의 강도적본성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제국주의의 본

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멸망의 날이 가까와올수록 더욱 발광적으로 침략과 전쟁의 수단에 매여달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이 약화된 기회를 리용하여 세계제패의 야망을 달성해보려고 제멋대로 날뛰고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단결되여있지 못한 것은 세계정세발전에 일정한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

만일 우리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마음대로 침략과 전쟁을 일삼도록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헤아릴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태를 가만히 앉아보고 있을수 있겠는가.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에게 공격의 창끝을 집중하여야하며 집단적인 반격을 가하여야 한다.

웰남문제는 오늘 반제투쟁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웰남문제에서 전세계 진보적력량과 반동적력량이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을 저지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데서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세계의 규모에서 조직화하고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정황밑에서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투쟁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물론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심지어 미국내부에서도 지배층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민주력량의 투쟁이 더욱 확대되고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충분하다고 말할수 없다.

반제력량은 강력한 단결된 힘을 가지고 미제와 맞서야 한다. 우리의 힘은 단결에 있다. 모든 반제력량이 굳게 단결한다면 능히 전쟁세력을 압도하고 미제를 패배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진영, 국제공산주의운동,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반제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 힘을 몇배로 증대시킬것이다. 또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고무할것이며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진정한 단결에로의 길을 열어놓을것이다.

오늘 반제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길에는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반제투쟁의 선두에 서있는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는 심각한 의견상이가 존재하며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조성된 난관은 저절로 해결될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의견상이가 심각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탐구하여야 한다.

정세는 우리들에게 반제공동행동의 실현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반제공동행동의 실현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 나선 선차적이며 절박한 혁명과업이다.

의견상이에서 주되는것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가 하지 않는가,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태도는 매개 당들의 맑스-레닌주의적립장을 평가하는 기본척도로 된다.

물론 의견상이문제는 이밖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반제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위해서는 다른 문제들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이 기본적인 문제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제공산주의운동은 공동행동을 취할수 있는 기초를 가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반제투쟁문제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오늘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을 반대하며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또한 웰남인민에게 일정한 물질적원조를 주고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현시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초보적기초가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웰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것은 실제투쟁속에서 검열될것이며 명백하여질것이다. 실천은 진실성여하를 밝혀줄것이며 맑스-레닌주의와 기회주의사이의 계선도 더 똑똑하게 보여줄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반제력량과 단결하여야 한다.

불철저하고 동요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동맹자를 쟁취하여 반제전선을 확대하며 미제를 최대한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레닌이 지적한바와 같이 《비록 일시적이며 불안정하며 불견고하며 신임치 못할》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반제투쟁의 길에 나서게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겠다고 하면 그러한 력량을 반제공동투쟁에 이끌어넣어야 한다.

반제투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반제투쟁에 나서도록 하여야 하며 반제투쟁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세계혁명의 전반적리익에 부합되는것이다.

반제공동투쟁은 무원칙하게 타협하자는것도 아니며 덮어놓고 단결하자는것도 아니다.

국제 공산주의운동내의 의견상이는 심각하며 원칙적성격을 띠고있다. 이 의견상이는 어물어물 덮어둘수 없다. 그것은 사상투쟁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반제공동행동을 취하면서도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자기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는 조건에서 행동통일을 하자는것이다. 기회주의적요소는 비판하고 극복하며 반제적측면은 지지하고 조장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반제통일전선정책에서 단결하며 투쟁하는 원칙을 항상 견지하여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모순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더 주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반제공동투쟁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고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미제를 반대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의 형성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곧 현시기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원칙에 충실한 길이며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지금은 모든 반제력량이 단합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수족을 얽어매고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려야 한다.

모든 력량이 반제통일전선에 결속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과감한 투쟁을 전개할 때 제국주의는 마침내 꺼꾸러질것이며 세계혁명은 승리할것이다.

* *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우리의 큰 밑천으로 된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이 경험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키여 자기의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잘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여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있다. 형제당들 호상간에 심각하고 원칙

적인 의견상이가 존재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도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우리에게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와 같이 앞으로도 대내외활동에서 독자성을 견지할것이며 자주로선을 관철하여 나갈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형제당대표들의 회의선언과 성명을 준수할것이며 세계혁명수행에서 지닌 자기의 민족적의무와 국제주의적의무에 항상 충실할것이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우리 당은 현대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이다.

우리는 또한 혁명투쟁을 진행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모든 반제력량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워나아갈것이다.

(1966년 8월 12일부 《로동신문》에서 전재)

자주성을 옹호하자

발행소	조선로동당출판사	인쇄소	동평양인쇄공장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인 쇄	1966년 11월 20일	발 행	1966년 11월 23일